

한국 리우올림픽 종합순위 8위 전망

유럽 스포츠 통계업체 인포스트라다 예측 발표 금메달 12개 · 은메달 5개 · 동메달 10개 예상

한국이 100일도 남지 않은 2016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12개를 따내 종합 8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럽 스포츠 통계업체 '인포스트라다'가 리우올림픽을 정확히 100일 앞둔 지난달 27일 발표한 예측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0개로 8위에 오른다.

인포스트라다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금메달 10개 이상을 획득해 하계올림픽 4회 연속 '톱10'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한다.

인포스트라다는 최근 세계 대회 성적 등을 바탕으로 1~2개월에 한 번씩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1월 인포스트라다는 한국이 금메달 1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종합 8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업체는 한국이 양궁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금메달 4개를 쓸어담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사격의 권중오(37·kt)가 10m 공기권총과 50m 권총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유도 73kg급 안창림(22·용인대), 90kg급 박동환(24·하이원)도 여전히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태권도 남자 이대훈(24·한국가스공사),

배드민턴 남자 복식 이용대(28·삼성전기)-유연성(30·수원시청)도 금메달 행진에 동참할 것으로 점쳤다.

다만 이 업체는 1월 예측 때 여자 골프 금메달 후보로 예상했던 박인비(28·KB금융그룹)를 은메달 후보로 내려앉혔다.

대신 은메달 후보로 예상했던 유도 66kg급 안바울(22·남양주시청)이 금메달 후보로 올라섰다.

양궁 여자 개인전 배드민턴 혼합복식 유도 60kg급 김원진(24·양주시청), 태권도 남자 김태훈(22·동아대) 등이 박인비와 함께 은메달 후보로 예측됐다.

인포스트라다는 미국이 금메달 42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31개를 따내 종합 1위를 차지하고 중국이 금메달 31개, 은메달 26개, 동메달 21개로 뒤를 이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한국과 똑같이 금메달 12개를 딸 것으로 예상했지만 은메달 개수(15개)에서 한국보다 10개 앞서 종합 7위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개최국 브라질이 금메달 9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로 10위에 복한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20위에 오를 것이라고 인포스트라다는 분석했다.

/김민근기자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개막을 100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최종심 선수촌장과 각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전격 사퇴

한진그룹의 조양호(67) 회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서 전격 사퇴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3일 "조 조직위원장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긴급한 그룹 내 현안을 수습하기 위해 그룹 경영에 복귀하고자 위원장직 사임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조 조직위원장은 2014년 8월 조직위원장을 맡을 당시 한진그룹의 당면 과제들을 뒤로 하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자리에 앉았다.

2년 전,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을 구하기 위해 대표이사직에 재취임했지만 최근 해운업 환경이 다시 급격하게 나빠지며 자구책 마련에 고심이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모든 임직원과 하나의 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잔여 현안들을 해결하는 등 본격적 대회 운영 준비를 위한 기틀을 다졌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조 조직위원장의 이탈로 조직위원회에 파견됐던 한진그룹 주요 인사들도 대거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회는 올림픽 개막을 약 1년10개월 앞두고 큰 틀이 붕괴됐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조 조직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 이란 방문 경제사절단에도 합류하지 않았다.

/김민근기자

국민 71% "박태환 올림픽 출전 찬성한다"

국민 10명중 7명은 수영스타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3일 발표한 박태환 관련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에 찬성한다'는 매우 찬성 42.0%·찬성하는 편 28.9%는 의견이 70.9%로 '박태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에 반대한다'는 의견 15.2%·매우 반대 6.5%는 의견 21.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이 82.8%로 가장 높았고 50대 76.9%, 40대 74.2%, 30대 63.2%, 20대 52.3%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반대 의견이 많아지는 것이 눈에 띈다. 성별로는 여성의 찬성이 74.1%로 남성(67.6%)보다 조금 높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의 찬성이 74.3%·보수층 73.4%·진보층 54.5%로 집계됐다.

/김민근기자

아킬레스건 수술 양학선 "올림픽 출전 꿈 놓지 않아"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해진 '도마의 신' 양학선(24·수원시청)이 리우올림픽 출전에 대한 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양학선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와 한국P&G가 후원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팽귄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양학선은 이날 "올림픽 출전 여부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아킬레스건 수술 후 재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 재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지원해준 분들을 위해서라도 올림픽 출전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출전에 대한 꿈을 포

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학선은 수술 후 40일 가량이 지난 현재 비교적 빠른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

양학선은 지난 3월22일 태릉선수촌에서 훈련 중 오른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하루 뒤 수술을 받고 재활에 전념하고 있다.

아킬레스건 수술 후 재활에는 최소 6개월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이 필요해 양학선의 올림픽 출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열어왔다.

2011·2013 세계선수권과 2012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명실상부한 '도마의 신'으로 등극했다.

/김민근기자



양학선은 3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와 한국P&G가 후원하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팽귄 캠페인'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 이 같이 밝혔다.

마자라, 박병호 제치고 AL 4월의 신인 선정

텍사스 레인저스의 외야수 노마 마자라(21)가 '박병' 박병호(30·미네소타 트윈스)를 제치고 메이저리그(MLB) 아메리칸리그(AL) 4월의 신인으로 선정됐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3일(한국시간) 마자라가 아메리칸리그 4월의 신인으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아메리칸리그 신인 가운데 가장 많은 6홈런을 친 박병호도 후보에 올랐으나 마자라에게 자리를 내줬다.

트리플에서 시즌을 시작한 마자라는 추신수(34·텍사스)가 부상을 당하면서 빅리그 데뷔 기회를 잡았다.

지난달 11일 빅리그에 나선 마자라는 4월 한 달 동안 17경기에서 타율 0.333(63타수 21안타) 2홈런 7타점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4월 한 달 동안 10개의 홈런을 몰아친 트레버 스토리(24·콜로라도 로키스)가 내셔널리그(NL) 4월의 신인을 거머쥐었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최우수 투수는 제이크 아리에타(30·시카고 컵스)와 조던 짐머먼(30·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차지가 됐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n 태권도원
THE GREAT CHANGE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